

에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월평빌라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시설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동료로 만나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 좋겠어요. 저에게 시설이, 사회사업이 그랬던 것처럼요.”

조금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다.

발달장애인도 살 만한 세상을 위해

이혜미

말아톤복지재단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 사회사업가

특정 직업을 갖고 싶단 포부보다 '누구에게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다'라는 뜻대로 살아 왔다. '사회복지사'라는 명분보다, 현장에서 몸소 부딪히며 '사람'을 알아가는 지금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들어맞는다. 여전히 사회복지사 껍질을 벗고 열매로 나아가는 중이다. 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 사례집 「내가 합니다」 공동 저자.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두 곳

사회복지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시가 끝난 후 원하는 대학에 못 간 현실에 좌절했다. 사회복지를 선택한 첫 마음보다 '입시 실패자'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학력 콤플렉스로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했다. 졸업 후에도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사회복지 현장 주변만 맴돌았다. 인권이라곤 없는 시설에 취직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되니 이런데 올 수밖에' 하며 절망 깊은 수렁에 빠지곤 했다. 이력서에 쓰지 못하는 4개월, 1년 미만 짧은 경력들이 그 증거다.

3년이라는 공백이 생겼다.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경험을 하며 사람으로 상처받은 일이 사람 때문에 아물기도 했다.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집중하는 자신을 봤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 사회복지임을 새삼스레 느끼며 다시 공부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지난 시간을 털어냈고, 좀 더 성숙해진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열정이 샘솟았다. 마음 준비는 끝났다. 이제 취업해야 하는데 공백도 길고 현장감은 더더욱 없었다.

이런 나를 알아봐 준 두 곳이 있다. 계약직에서 시작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 어느 종합사회복지관과 현재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말아톤복지재단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르신들과 만났다. 일하는 절차를 배우고 슈퍼비전을 통해 실천력을 키우며 시야를 조금씩 넓혔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고 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이곳에서 생겼다.

현재 일하고 있는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²⁰⁾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사회사업다운 일을 발현해내도록 이끌어주는 곳이다. 이 글 제목인 '발달장애인도 살 만한 세상을 위해'는 우리 재단 미션이다. 내가 5년 동안 바라본 재단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오랜 전통을 바꾸는 일도,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직원으로서 불만이 생기면 상임이사님이 언제든 만나주고 상담도 해주셨다. 호랑이 선생님처럼 혼내기도 하시고 아버지처럼 달래기도 하셨다. 5년 동안 한결같이 '돈만 벌려고 하는 직장을 찾는다면 우리 재단은 맞지 않다.'라고 하신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느낀 사회복지 현장은 가치나 방향성 없이 단순 직업으로만 안주하면 시간이 갈수록 허울과 고뇌만 남는다. 사회복지의 적극적 배움과 나서지 않으면 언젠간 쌓이는 경력 틈 사이로 자질이 탄로 난다. 그렇기에 적절한 긴장과 배움을 주는 선배 사회복지사들과 일하는 지금이 내겐 축복이다. 뭐든 척척 잘 해내는 사회사업가이기보다, 실수할지라도 계속 전진하기 위해 애쓰는 단단한 사회사업가이고 싶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 머무는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

20) '주간보호센터'가 공식 이름이지만, '주간활동지원센터'라 힘이 옳다. 우리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보호 받으며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여느 사람처럼 '일상'을 이루고 누리게 지원하는 곳이다.

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²¹⁾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된다. 정식명칭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며, 소규모 복지시설에 속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이용하며 여러 문화·여가·건강·일상과 관련된 시간을 보낸다. 일부 시설에서는 재활·치료·사회적응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후 용어 기준과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용어가 장애인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을 반영하기도 한다.

당사자 인생이 펼쳐지는 곳

주간보호센터에는 의학적으로 중증인 분들이 많다. 자립으로 일상을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다. 식사 지원, 신변처리, 여가 활동 등 누군가 옆에서 얼마쯤 도움을 드려야 한다. 센터에 오는 가족에게 당사자 일과를 여쭙 보면 대부분 집에서 아침 식사하고 센터에서 낮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후 집에서 저녁 먹고 잠자는 일상을 반복한다. 우리 같은 성인임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생활 반경을 결정하거나 누리는데 제한이 있는 건 분명하다.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성인인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1.

운 삶을 펼치고 만끽하도록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극적 역할로는 안전한 보호를, 적극적 역할로는 당사자가 행복한 삶과 꿈을 이루도록 동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생이 펼쳐지는 주 무대이자 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 '집단'이 아닌 여러 '삶'이 모인 곳

주간보호센터에서 당사자 개개인 역할과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장애인 집단'으로 바라보기 쉽다. 우리 센터는 당사자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지역사회로 나간다. 각 성향을 존중하며 성인답고 사람답게 사회에서 어울리도록 애쓴다.

우리 센터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이 오면 당사자 개별 정보를 간략하게 써 주는데 장애 분류와 종류는 적지 않는다. 당사자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못 먹는 음식, 안전을 위한 특이사항 정도만 기록한다. 직접 당사자를 마주하며 사람 대 사람으로 알아가도록 한다. 한 실습생이 실습 마지막 날 내게 물었다.

“혹시 동미 씨는 어떤 장애예요?”

“동미 씨요? 다운증후군이요.”

“네? 다운증후군이요? 이제 알았어요. 동미 씨를 대할 때 다운증후군을 아는 건 큰 의미가 없네요.”

다운증후군은 모습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동미 씨와 인격적으로

먼저 친해진 실습생은 당사자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크게 궁금해 하지 않았다. 우리 센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마지막 날까지 다 운중후군이란 걸 몰랐던 자신에게 놀랐다. 만일 우리가 장애 유형을 강조했다면 실습생 또한 ‘장애인은 이렇다.’라는 수식을 만들어 동미 씨를 끼워 넣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을 집단으로 규정해 통솔하는 곳이 아닌, 여러 삶을 들여다보며 인생을 즐기는 곳이다.

주간보호센터 주인은 당사자

“우리 센터 모델 연서 씨 오셨어요!”, “오늘은 규연 씨가 패션 스타네요!” 당사자 인생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수식어를 자주, 많이 붙여드린다. 우리가 부르는 당사자 수식어에는 관심이 묻어있고 그 사람 매력이 흘러나온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당사자 모습을 그날 상황에 맞게 예쁘게 표현해 드리면 된다. 사회복지사 표현이 당사자 이미지를 만들고 대하는 태도를 규정하기도 한다.

주간보호센터 주인은 당사자고, 사회복지사는 옆에서 잘 거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라는 명분으로 당사자 삶에 감히 관여하기에 우리 역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성찰한다. 말을 못 하거나 못 알아듣는다고 인격을 무시한 채 함부로 대하진 않는지 우리 태도를 경계한다. 주간보호센터는 인권의 최전선에 있다.

즐거움은 작은 소통에서

“자! 우리 같이 조회 준비할까요?”

우리 센터는 오전 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모두가 집중 받고 서로에게 주목하는 시간이다. 8장 남짓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오늘 날짜와 일정 및 점심 식사 메뉴 등이 있다. 짧으면 15분, 길면 30분도 걸린다. 오전 모임 처음 시작은 당사자에게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였다. 이전에는 벽에 붙여놓은 게시판이 전부였는데 보는 사람은 드물다. 외출이라도 할 때면 마치 당사자가 ‘뭘야? 왜 나가? 어디가?’ 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직원이 계획한 프로그램에 당사자가 끌려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회는 활기찬 하루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 있는 일상을 누리도록 한다.

처음엔 10명 넘는 사람이 15분 이상 함께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소리 내며 제 갈 길 찾아갔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도 진행했고, 적막해도 곳곳이 진행했다. 3년 차에 접어든 오전 모임은 당사자 표현을 건의 사항 삼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제 갈 길 찾아가는 사람에겐 마이크를 드리며 인사를 맡기고, 지루해하는 사람에겐 점심 식사 소개를 맡긴다. 처음엔 직원이 앞에 나서서 모두 진행했다. 지금은 점점 비중이 줄고 당사자분들이 이끌어간다. 직원도 덜 힘들고 당사자는 주인공이 된다.

요즘은 30분을 앉아 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다. 마이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가며 신나게 떠들면 이제는 정보제공보다 소통하는 즐거움에 분위기가 산다. 당사자 표현이 조금씩 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서로가 세워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센터 분위기가 밝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조희 주춧돌은 직원이 놓았을지라도 오랜 시간 공든 탑을 쌓은 건 당사자분들이다. 우린 함부로 혼련하지 않는다. 당사자 작은 표현과 반응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주목할 만한 일을 만들뿐이다. 주간보호센터 즐거움은 늘 작은 소통에서 시작한다.

우리들의 한 해 시작

우리 한 해는 설날과 한복으로 시작한다. 당사자에게 절기를 알려드리려면 백번 말로 설명하기보다 멋스럽게 한복 입고 인사하며 직접 느껴보면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가정에선 “한복이 없어요.” 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조은영 센터장님이 여기저기서 한복을 구해와 당사자 모두 입게 해드렸다. 한복 입은 당사자 모습을 보면 환호성이 쏟아진다. 이렇게 나온 소위 ‘인생 사진’을 각 가정에 보내드리니 다음 해에는 절반 이상이 한복을 챙겨주셨다. 지금은 모든 가정에서 개량 한복이든 맞춤 한복이든 보내주신다. 잘 차려입은 자녀 모습을, 주간보호센터에서 즐겁게 지내는 자녀 일상을 싫어할 부모님은 없다.

주간보호센터지만 가끔은 일탈을

주간보호센터는 당사자분들과 주로 낮 시간을 활용해 지내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센터는 당사자 한 분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함께 계획했다면 시간 외 근무를 활용한다. 가끔 낮 시간을 벗어난 일탈은 당사자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달리 보이는 모습에서 사람다운 일상이 무엇인지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최근에 규연 씨와 함께한 일이 그렇다.

<청년 강규연, 노을 짙은 흥대를 가다>

“규연 씨, 생일에 뭘 하고 싶어요?”

“케이크, 과자.”

규연 씨가 늘 센터에서 다 같이 하던 생일 파티를 떠올렸나 보다. 규연 씨가 오롯이 좋아하는 일들로만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생각했다. 질문을 간결하게 바꿔가며 꼭 하고 싶은 일을 물었다. 규연 씨가 직원 눈을 쳐다보며 분명한 목소리로 답한다.

“노래방.”

어머니와도 의논했다. 규연 씨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 찬성이라고 하셨다. 규연 씨는 옷에 관심이 많다. 센터 일과에는 옷 사러 갈 만한 일이 없기에 규연 씨가 옷을 좋아한다 해도 직원에게 선뜻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번에는 좋아하는 노래방을 가고, 옷을 사는 건 어떨지 규연 씨와 어머니께 여쭙고 결정했다.

드디어 놀러 가기로 한 날, 어머니가 흰 봉투에 오만 원을 넣어주며 “규연이가 좋아하는 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다. 집에 갈 시간이 훌쩍 넘어 오후 5시.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두 번을 갈아타고 청년들이 붐비는 흥대에 도착했다. 규연 씨 눈이 커졌다. 특이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나 외국인을 보면 다시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코인노래방에 갔다. 리모컨을 먼저 잡는 규연 씨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물었다. “나훈아 잡초”, “나훈아 무시로”, “나훈아 고장 난 벽시계.” 규연 씨가 결정하면 직원은 숫자 버튼을 열심히 눌렀다. 자기가 선택하고 신나게 즐기는 규연 씨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규연 씨와 옷 매장을 찾았다. 남자 옷 위치가 어딘지만 알려드렸다.

“규연 씨, 입고 싶은 옷 골라 봐요. 다 고르고 얘기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규연 씨는 강아지가 그려진 남색 옷을 들고, 계산대 앞에 직접 섰다.

“규연 씨 가방에 있는 돈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규연 씨가 점원에게 옷을 직접 주고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오만 원도 내밀었다. 잔돈을 거슬러 받자 직원에게 준다.

“규연 씨 돈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잔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기분이 좋은지 손뼉을 두 번 친다. 다음엔 어머니께 흰 봉투 대신 규연 씨 지갑을 챙겨달라고 해야겠다.

계산을 마치고 점원이 쇼핑백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하자 규연 씨도 허리를 숙여 같이 인사했다.

홍대 지리를 모르는 규연 씨에게 저녁 식사를 추천했다. 사실 규연 씨 앞니가 흔들리고 소화까지 안 되기에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다.

“규연 씨, 함박스테이크 오므라이스 어때요?”

“예. 좋아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규연 씨가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확인한다. 그리곤 자기 스타일로 다시 접어 넣었다. 미소를 짓는다. 마음에 드나 보다. 식사 후엔 배를 통통 치곤 “아 배불러” 하며 웃는 규연 씨다.

홍대 거리를 지나 대로변을 걷는데 큰 건물 사이로 노을이 진다. 5월답게 따뜻한 저녁 냄새도 났다. 사람이 많아 규연 씨 뒤에서 걷다 보니 거리 간격이 생겼다. 이쯤 되니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규연 씨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고 “어, 어, 어?”라며 노을을 본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인지 알 수 없지만 자유로워 보였다.

어머니를 만나 오늘 있던 일을 말씀드리고 옷 사는 동영상과 여러 사진을 보내드렸다. 저녁 식사를 걱정했는데 부드러운 음식이라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고, 동영상을 보시곤 직접 계산하는 아들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규연 씨 일가친척에게 동영상을 뿌리며 ‘내 아들이여’라고 자랑하셨다. <2023.5.9. 강규연 개인별 일지 발췌·편집>

다음 날, 다른 직원들이 규연 씨에게 어제 뭐 했는지 이것저것 물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나에게 물었다.

“혜미 선생님, 규연 씨가 어제 한 일 중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음. 노래방? 함박스테이크?”

“아뇨. 자기 옷 샀다고 제일 먼저 말했어요.”

규연 씨에게는 노래방이나 맛있었던 음식보다 자기 옷을 직접 산 일이 가장 좋았나 보다. 성인 발달장애인도 여느 청년처럼 지역사회에 나가 하고 싶은 걸 직접 해보는 경험이 기억에 남는 일이자 자연스러운 일상임을 느낀다.

때론 주간보호센터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논한다. 부족한 인력, 제한된 이용 시간, 돌봄에서 오는 소진 등 여러 상황이 있다. 하지만 센터장님, 동료들과 당사자 지원에 관한 공부하며 여러 이유를 잠시 내려놓아 본

다. 혜안이 생긴다. 당사자에게 사는 맛을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도 사회 사업 하는 의미를 주는 실마리가 보인다. 학습은 확신을 주고 확신을 방법을 찾게 한다. 나는 당사자분들이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고 싶다.

당사자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 곳

“저를 뽑아주신다면”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 즈음 우리 센터도 반을 정한다. 몇 년 전에는 어떤 당사자를 지원할지 직원끼리 의논했지만, 센터장님이 질문을 던졌다.

“당사자가 주인이라면 당사자가 직원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다. 센터장님이 던진 화두에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직원 각자 세 가지 정도 공약을 세워 이에 걸맞은 반 이름을 정했다. 당사자 환심을 사기 위해 시청각 자료도 만들며 대망을 품고 준비했다.

처음 반 편성하던 날, 매일 같이 지내는 사람들임에도 어찌나 떨리던지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저를 뽑아 달라!” 공약을 외치고 춤까지 쳤다. 당사자들도 무대로 올라와 같이 춤추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놓고 나를 뽑지 않은 당사자에게 서운하기도 했다.

몇 년째 이뤄지는 반 편성에 당사자분도 직원도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한 직원은 조리사 동의 없이 맛있는 반찬을 두 배로 드린다고 하질 않나, 당사자분은 공약엔 안중 없고 매년 예쁜 직원만 선택했다. 이런 유쾌한

상황에 깔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평소 조용하던 연서 씨도 이런 분위기에 박수 소리 내며 목젓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쌓인다. 이 모든 과정 중심에 당사자분들이 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어요!”

2022년 가을, 동료들과 외부교육을 다니며 주간보호센터 이야기를 담은 책22] 발간 작업을 했다. 센터장님은 책 출판이 나아가 당사자와 센터를 위한 활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랐다. 당사자 이야기를 담은 개별 책자를 만들어 송년 파티 때 선물하기로 했다. 우리 센터는 2021년부터 당사자 개인별 추억·희망·소망에 초점을 맞춰 서술식으로 일지를 썼다. 글 솜씨는 부족할지언정 묵혀두기 아까운 당사자 이야기가 있다.

처음엔 기록한 일지가 책자로 나온다니 두려움이 앞섰다. 당사자분들에 게도 읽어 드릴 텐데 기분 나쁜 지점이 있진 않을까,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표현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글을 다듬었고 책자 디자인도 직원이 손수 그렸다. 구슬 서 말이 잘 꿰어진 보배가 되었다. 송년 파티 때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이 책장을 넘기며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얼마 후, 당사자 가족들이 책자 받은 소감을 적어주셨다.

‘궁금했던 재윤이 센터 생활을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감동이네요.’

22] 「내가 합니다」 (구슬개는실, 2022)

‘우리 집 국보 1호입니다.’

‘제가 몰랐던 성훈이 모습이 보이네요.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한 느낌입니다.’

‘제 아들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재밌는 소설을 한 권 읽은 느낌이에요. 행복하네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부족하고 힘든 존재’라고 표현한다. 그런 자녀가 센터에서 보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지역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 기록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당사자분들과 가족을 생각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태도를 가다듬고 마음을 새롭게 해본다.

“올해는 어떤 콘셉트로 달력을 만들까요?”

우리 센터는 2019년부터 당사자 사진이 가득 담긴 달력을 만든다. 매년 달력이 같지 않다. 콘셉트를 정하고 사진 배치를 한다. 첫해는 단체 활동이 많이 들어간 사진이었다. 이후 센터장님과 직원들이 배우고 공부한 만큼 담은 모습과 사진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해갔다. 2023년엔 당사자 사진과 함께 꿈과 희망도 적었다. 요즘엔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 당사자 얼굴에 점과 상처도 지우고 매끄럽게 만들어드린다. 애정이 있고 관심을 가지니 내 증명사진 만들 듯 심혈을 기울인다.

재운 씨 아버님은 달력 만들기 한참 전부터 2개월 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를 여쭙보니 재운 씨가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달력을 넘기며 센터 사람들을 소개하느라 3월이면 너털너털해진단다. 얼마 전 성훈 씨 어머니도 달력

애기를 하셨다. 성훈 씨 집에는 아들 얼굴이 크게 있는 1월에 달력이 멈춰 있단다. 어머니는 “아마 다른 분들도 저희 집 같지 않을까요?” 하시며 밝게 웃으셨다. 뿌듯하면서 한편으론 ‘아! 달력이 멈춰있으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하지?’ 하며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고민했다.

사소한 고민에서 시작한 우리 수고는 늘 중요한 메시지로 돌아온다. 당사자 중심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발전할 때 당사자가 빛난다. 그 빛은 사방에 영향을 끼친다. 나는 이런 맛에 사회사업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오래 일한다. 우리가 머리 맞대고 손발을 바쁘게 움직여 이뤄낸 작고 큰 수고로 당사자와 그 가족이 행복하길 바란다.

‘당사자와 그 가족이 행복한 주간보호센터’도 우리 센터 미션이다.

가치 있는 일은 어디서든 빛이 나기에

내가 종합복지관에서 잠시 근무하다 주간보호센터로 이직했을 때 “그 사람 하향 지원했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선배 사회복지사가 겪은 과거 일을 들어보니, 간혹 주간보호센터는 복지관에서 홀대받는 영역이자 장소로 여겨지기도 한단다. 나에게 꽤 충격적인 표현이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수준이나 급을 나눠버리는 기괴한 현상이었다.

몇 년 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공청회’에 참여했었다. 일부 주간보호센터에선 행정력을 키울 시간조차 없이 단순 돌봄도 힘들다며 목적을 높였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상과 변화에 목마르지만, 구조적으로

여력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늘 공존해있는 듯하다.

위 두 가지 상황을 겪으며 생각했다. 주간보호센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일임이 틀림없다. 나는 주간보호센터 여러 동료 사회복지사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자극을 받는다.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당사자를 대하는 말투부터 곱고 예쁘다. 당사자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인격이 묻어난다. 그들과 함께 있는 당사자 얼굴도 편안해 보였다. 주간보호센터에는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도 많다. 나는 주간보호센터에 종사하며 이 일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모든 사회사업가를 응원하고 존경한다.

가치 있는 일은 어디서든 빛나기 마련이다. 발달장애인도 살 만한 세상은 내가 마주하는 당사자 삶이 내 인생만큼 존중받도록 지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 길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강점, 관계, 주도성을 살리는 사회사업가

이주희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부장

2005년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여, 18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이제야 사회사업을 조금 알 것 같다. 더 잘 배워 잘 실천하고 싶은 사회사업가이며 '함께'가 좋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다.

